

중국어 운모의 발음 학습과 교육 방안*

백 승 석**

<目次>

I. 머리말	1. 복운모
II. 單韻母의 학습과 교육	2. 비운모
1. 단운모 /a, i, u/	IV. 개음의 발음 곤란과 학습
2. 단운모 /ü/	1. 개음과 단모음의 결합
3. 단운모 /o/	2. 개음과 이중모음, 비모음과의 결합
4. 단운모 /e/	V. 맺음말
III. 複韻母와 鼻韻母의 학습과 교육	

I. 머리말

흔히들 중국어는 처음에 배우기 어려운 언어라고 말하고 있는데, 四聲의 성조를 포함한 발음상의 어려움이 그 주요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 때문에 교육현장에서는 일찍부터 어떻게 하면 보다 쉽고 정확하게 성조를 포함한 중국어 발음을 학습하고 교육할까에 대하여 고민해 왔었다. 한희창(2013:63)이 언급한 것처럼 2011년까지 국내에서 발표된 발음관련 논문이 총 118편으로 그동안 중국어 발음과 교육에 대한 많은 논의가 진행되었음

* 본 논문은 2017년도 영남중국어문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논문을 수정 보완 한 것임.

** 동국대학교 중어중문학과 교수

알 수 있다.¹⁾ 그러나 이 같은 연구들이 실제의 교육현장에서는 활용하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보면,²⁾ 두 언어 사이의 유형적 차이에서 오는 어려움만큼이나 보다 효과적인 발음 학습과 교육방법의 제안이 쉽지 않았던 것이 현실이다.

본고에서는 한글을 활용하여 어떻게 하면 초학자들이 보다 쉽고 정확하게 발음을 학습하고 또한 그들을 교육할 수 있을지에 대하여 운모를 중심으로 새로운 방안을 제시해보려고 한다.³⁾ 한글을 활용하여 중국어 발음을 표기하려는 시도는 현재까지 발표된 김용옥, 최영애(1983), 문교부(1986), 엄익상(1996) 등 3종의 한글 표기법이 가장 대표적이다. 그러나 이 같은 표기법들은 전광진(1999:348)의 지적처럼 간략전사(broad transcription), 즉 음소 전사(phonemic transcription)를 통한 두 언어 사이의 음소 대비를 기초로 했기 때문에 실제 발음과는 차이가 나는 문제점이 있다. 이 때문에 보다 정확한 발음의 학습과 교육을 위해서는 음성학적인 대비 분석이 필요하다. 외국어를 학습할 때에는 모국어의 영향과 간섭을 제거해야만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초보자들에게는 처음에 모국어를 통해서 외국어에 접근해야 비로소 그 해당 외국어의 이해가 시작된다는 것도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따라서 두 언어 사이의 대비를 통하여 정확한 파악과 이해를 바탕으로 차이점과 공통점을 확인하고 그것에 따른 외국어의 학습과 교육이 이루어져야만 한다. 이것은 또 다른 중국어 한글 표기법을 제시하려는 것이 아니고, 훈민정음 창제 당시에도 주목 받았던 발음부호로써의 기능을 활용해보려는 것이다. 이 같은 시도는 글쓰기의 일관성 확보에 치중하여 정확한 실제의 중국어 발음을 제대로 표기하지 못

- 1) 2011년 이후는 DBpia와 KISS의 목록을 통해서 살펴보면 30여 편의 논문이 발표되어 최근까지 모두 150여 편 정도의 중국어 발음관련 논문이 발표되었음을 알 수 있다.
- 2) 한희창, <한국에서의 중국어발음 연구동향 고찰>, 《중국어연구》 제48집, 2013, 78쪽.
- 3) 이 같은 제시는 필자가 30여 년간 기초중국어 교육에 참여하여 학습자들의 발음학습에 좋은 성과를 거둔 결과에 기반을 둔 것이다.

하고 있는 중국어 한글 표기법들의 단점을 보완하여 중국어 발음교육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II. 單韻母의 학습과 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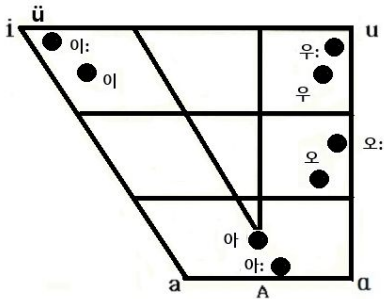
한국어는 단모음 / 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 8개와 이중 모음으로도 발음할 수 있는 단모음 / ㅛ, ㅟ / 2개가 있고, 중국어는 6개의 단모음 / a, e, i, o, u, ü⁴⁾가 있다. 중국어의 단모음 중에서 /a, i, u/는 한국어의 단모음 /ㅏ, ㅣ, ㅜ/와 대체로 혀의 높낮이와 위치, 입술의 원순도가 유사하여 조금만 유의하면 발음하기에 상대적으로 어렵지 않은 단모음이다. 그러나 나머지 /e, o, ü/는 우리의 모음과는 전혀 다른 것으로 한국인으로서 명확하게 구분하여 발음하기가 쉽지 않는 단모음이다. 이와 같이 단모음 사이의 유사점과 차이점에 대해서도 주의를 기울여야 하지만 그러나 무엇보다도 주의해야할 점은 朱川(1997:81)이 지적한 것처럼, 중국어의 단모음은 輕聲 음절일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긴장음(緊音)이라는 것이다. 긴장음이란 발음할 때 발음기관의 근육을 긴장시켜서 길고 또렷하게 발화해야하는 것으로, 이 같은 발음방법은 이완음(鬆音)으로 짧게 발음하는 한국어 모음과의 가장 큰 차이점이다. 사실, 하나의 의미전달 단위가 다음절로 이루어진 한국어에 비하여 한 음절로써 한 단어의 뜻을 전달해야하는 중국어는 한 음절씩 또렷하게 발음해야 정확한 의사전달이 가능하기 때문에, 음절을 구성하고 있는 음소가 긴장음으로 분명하게 발화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발음방법은 한국어와는 전혀 다른 것으로 우리가 중국어 발음을 학습할 때에 무엇보다도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부분이다.

朱川(1997:5)은 한국학생들이 중국어 음절을 짧고 급한 어조로 말하는

4) 단모음에는 6개 외에도 4개의 특수 단모음(ㅚ, ㅝ, ㅞ, ㅟ)이 있다. 한어병음 i로 표기되는 설첨후모음 [ɿ], 설첨전모음 [ɨ], i와 ü뒤에만 출현하는 é[ɛ], 권설모음 er[ər]이 있다.

것을 지적하고 그 원인을 입성인 파열음 [p] [t]가 한국어 음절 끝에 있기 때문에 중국어 음절을 길게 늘이지 못하고 급하게 끝을 맺는 것으로 보았다. 물론 이러한 특징이 하나의 원인으로 지적될 수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두 언어사이의 유형적 차이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중국어를 모르는 한국인에게 중국어가 시끄럽게 “썰라 썰라”로 들리는 것은 아마도 성조를 포함한 발음 때문일 것이고, 한국어를 모르는 중국인에게 한국어가 “jiliguāla gualajili”로 들리는 것은 긴장음으로 또렷하게 발화되는 중국어에 비해 다음절어인 한국어의 음조가 빠른 이유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중국어를 배우는 한국학생들에게는 한국어와 중국어가 유형적으로 전혀 다른 언어임을 주지시키고 발음기관의 근육을 긴장시켜서 한 음절씩 긴장음으로 분명하게 발음하는 연습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사항이다. 그 방법으로는 큰소리로 길게 발음 연습을 하는 것인데, 여기에 알맞은 한글 표기가 제시된다면 초학자들의 발음 학습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사실 이현복(1989:23)이 제시한 한국어의 모음 사각도를 보면⁵⁾, /이/와 /우/를 길게 ‘이:’와 ‘우:’로 발음하면 짧게 발음하는 ‘이’와 ‘우’보다 혀의 위치가 상승하고, /아/를 길게 ‘아:’라고 발음하면 짧게 발음하는 ‘아’보다 혀의 위치가 하강하는 것을 볼 수 있다.⁶⁾ 이렇게 우리의 /

5) 도표는 중국어 모음과의 비교대조 편의상, 林·王(1992)을 기본으로 참고하여 겹쳐서 작성한 것이다. 이하 동일함.

6) 이호영(1996:107:111:114)의 모음 사각도에서 /아, 이, 우/는 이현복보다 좀 더 기본모음에 치우쳐있지만, 이호영도 /아, 이, 우/는 단음으로 짧게 발음될 때보다 장음으로 길게 발음될 때 기본모음 [a][i][u]에 더 가까운 음가로 실현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이진호(2012:205)도 동일 모음이라도 長短에 따라 音價가 차이가 나는데, 길이가 짧은 모음보다는 긴 모음이 모음 사각도에서

아, 이, 우/를 좀 더 길고 강하게 발음했을 때에 중국어의 단모음 /a, i, u/의 혀 위치에 접근하게 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중국어 단모음 /a, i, u/은 우리의 /아, 이, 우/ 보다 발음기관을 긴장시켜 길고 강하게 발음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학습해야 할 것이다.

이제 구체적으로 먼저 한국어 단모음 /아, 이, 우/와 유사한 /a, i, u/를 비교하여 살펴보고, 다음으로 우리에게는 발음하기 어려운 3개의 단운모 모음인 /ü, o, e/를 순서대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1. 단운모 /a, i, u/

/a/는 실제 발음이 인접한 음의 상황에 따라서 중설저모음 [A]로 보기도 하고, 전설저모음의 [a] 혹은 후설저모음 [ɑ]로 보기도 한다. /a/는 뒤에 다른 음이 없을 때 중설저모음 [A]로 발화되는데, 앞의 모음 사각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중설저모음 [A]는 한국어의 중설저모음 /아/ 보다 혀의 위치가 좀 더 낮아서 한국어 /아/의 장음 ‘아:’와 거의 일치하게 된다. 따라서 중설저모음 /a/[A]는 /아/를 길게 ‘아:’로 발음해야 한다. 이 장음을 2음절 ‘아아’로 표기하고 단음의 운미는 1음절 ‘아’로 표기한다. ‘아아’는 2음절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 한 음절로써 앞쪽이 강세이며 입 모양의 변화 없이 길게 /아:/로 발음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일본어에서 ‘ああ’의 표기는 2음절 ‘아아’로 발음하지 않고 장음 ‘아:’로 발음하는 것과 같다.

/i/는 일반적으로 /a/와 함께 학습하기 쉬운 단모음으로 알려져 있는 전설고모음이다. 한국어에 이것과 비슷한 음으로 단모음 /이/가 있는데 국제음표도 [i]로 동일하다. 그러나 이 두 음의 음가는 서로 같지 않다. 앞의 모음 사각도에서와 같이 한국어 단모음 /이/는 중국어의 /i/보다는 혀 위

좀 더 가장자리로 치우치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 즉 전설모음은 長音이 더 앞에서, 후설모음은 長音이 더 뒤에서, 그리고 고모음은 長音이 더 위쪽에서, 저모음은 長音이 더 아래쪽에서 발음된다고 음가 변이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치가 약간 낮고, 길게 ‘이:’라고 발음할 때 사각도의 가장자리로 치우쳐서 고모음 /i/에 근접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이/는 중국어의 /i/와는 달리 발음기관과 구강내의 근육이 긴장되지 않는 발음으로, 그 음가는 이 중모음의 복운모 ‘ai, ei’의 운미인 /i/와 유사하다. 이 때문에 중국어의 단모음 /i/를 정확하게 발음하기 위해서는 한국어 단모음 /이/보다 입술형태(脣形)를 양옆으로 좀 더 크게 벌려 혀의 위치를 위로 올리고 입술에 힘을 주어 길게 ‘이:’로 발음해야 한다. 영어 ‘cheese’[tʃi:z]의 장음 [i:]와 같으며, 요즘 우리가 사진을 찍을 때도 ‘김치~’하며 입을 양옆으로 한껏 벌리고 ‘치:’를 길게 발음하는 것과도 같다. 이 음을 편의상 2음절 ‘이이’로 표기하고 개음이나 운미는 1음절 ‘이’로 표기한다. ‘이이’ 역시 /a/의 ‘아아’처럼 2음절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 한 음절로써 앞쪽이 강세이며 입 모양의 변화 없이 길게 ‘이:’로 발음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 또한 일본어에서 ‘いゝ’의 표기는 2음절 ‘이이’로 발음하지 않고 장음 ‘이:’로 발음하는 것과 같다.

/u/도 우리에게서 어렵지 않은 발음으로, 한국어 단모음 /우/와 유사한 원순 후설고모음이다. 앞의 모음 사각도에서와 같이 한국어 단모음 /우/는 중국어의 /u/보다는 혀의 위치가 낮고, 길게 ‘우:’라고 발음할 때 /u/에 근접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한국어 /우/는 중국어 /u/와는 달리 장음의 긴장음이 아니고 단음의 이완음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후설고모음 /u/를 정확하게 발음하기 위해서는 한국어 단모음 /우/보다 입술을 더 둥글게 하고 힘주어 앞으로 더 내밀며 ‘우:’라고 길게 발음해야 한다. 이 장음을 2음절 ‘우우’로 표기하고 개음이나 운미는 1음절 ‘우’로 표기한다.⁷⁾ ‘우우’ 역시 ‘아아’ 혹은 ‘이이’와 마찬가지로 2음절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 한 음절로써 앞쪽이 강세이며 입 모양의 변화 없이 길게 ‘우:’로 발음하는 것을 의미한다.

7) u는 개음이나 운미에서는 [u]보다는 낮고 [o]보다는 높은 변이음 [ɯ]로 발화한다. 이 때문에 운미에서는 ‘오’로 표기할 수도 있다.(II.3 단운모 /o/; IV.1 복운모 참조)

이상과 같이 단운모의 모음 /a, i, u/는 한국어 단모음 /아, 이, 우/의 혀의 높낮이와 위치, 입술의 원순도가 서로 비슷하여 한국인 학습자에게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 발음들이다. 그러나 반드시 주의해야할 점은 우리의 /아, 이, 우/와는 달리 모두 혀와 입술 등 발음기관을 긴장시켜 길게 발음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의 /아, 이, 우/를 좀 더 길고 강하게 ‘아:, 이:, 우:’로 발음했을 때에 중국어의 단모음 /a, i, u/에 접근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중국어 단모음 /a, i, u/은 우리의 /아, 이, 우/ 보다 발음기관을 긴장시켜 길고 강하게 발음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학습해야 한다.

필자는 이 같은 교육과 학습을 위하여 /a, i, u/를 2음절 ‘아아, 이이, 우우’라고 표기하여 장음의 긴장음을 나타내고, 다른 모음과 결합하여 개음 혹은 운미부분을 담당할 때는 주요모음보다는 짧고 가볍게 발음해야하기 때문에 1음절 ‘아, 이, 우’로 표기하고자 한다. 이것은 장음과 단음의 차이를 구분하여 중국어 음절의 긴장성을 표현하려는 것으로 지금까지 단음절로 표기했던 중국어 한글표기법과는 다른 방법이다. 端木三도 鵝[é]와 같이 운미가 없는 운음절은 [x:]로 장음화하여 주요모음과 운미의 자리를 동시에 차지한다고 했다. 즉 어떤 종류의 음절이든 성조가 있는 운음절일 경우 전체의 음절 길이는 비슷하다는 것이다.⁸⁾ 중국의 전통적인 음절의 분석에서 운모는 최소 1개의 모음부터 최대3개의 모음으로 이뤄져 있는데, 端木三의 견해를 따르면 1개의 모음으로 이뤄진 운모와 3개의 모음으로 이뤄진 운모의 음절 길이가 비슷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때문에 앞에서 제시했던 단운모의 모음 /a, i, u/의 표기인 ‘아아, 이이, 우우’도 실제 한 음절 속에서는 주요모음으로 길게 발화하여 ‘아:아’, ‘이:이’, ‘우:우’라고 2음절 이상으로 발음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길게 연습해야할 것이다.

8) 엄익상, <표준중국어의 음절구조와 발음의 위치>, 2013, 53 및 55쪽 참조.

2. 단운모 /ü/

전설고모음 /ü/[y]는 한국어 음운체계에는 없는 음으로, 우리가 발음하기 어려운 모음이다. 혀의 위치는 전설고모음 /i/와 같지만 원순모음으로 입술을 둥글게 만들어야 하는 점이 다르다. 曹文(2002:59)을 보면, 발음방법은 먼저 전설고모음 [i]를 발음하여 혀의 위치를 고정시키고 난 후에 입술을 둥글게 하면 [y]를 발음할 수 있고, 또는 먼저 후설고모음 [u]를 발음하여 입술의 둥근 형태를 고정시킨 후에 혀의 위치를 바꾸어 [i]를 발음해도 [y]를 발음할 수 있다고 한다. 혀의 위치는 [i]와 같고, 입술의 원순 형태는 [u]와 같다는 설명인데 우리에게서 어려운 발음임에 틀림없다.

중국어 수준이 비교적 높은 학습자들도 전설고모음 /ü/가 포함된 운모의 음절은 발음이 정확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특히 ‘nü, lü, ju, qu, xu, yu, jun, qun, xun, yun’ 등 10개의 음절이 그러하다. 구체적으로 잘못 발음하는 현상을 몇 가지 예를 들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雨 yǔ (ü → ü+i 혹은 ü+ɿ)⁹⁾
 去 qù (ü → qü+i 혹은 qü+ɿ)
 云 yún (ün → ü+in 혹은 ü+jn)

단모음 /ü/에 /i/를 붙여 이중모음 형태인 [wi]로 잘못 발음하거나, 아니면 /ü/에 반모음(Semivowel) [j]를 붙여서 [wj]로 잘못 발음한다. 심지어 /ü+/i/처럼 2음절로 발음하여, 1음절 ‘雨’[yǔ](비)가 중국인에게는 2음절 ‘雨衣’[yǔyī](비옷)처럼 들린다고 한다.¹⁰⁾ 단모음 발음의 주요 특색은 처음부터 끝까지 입의 형태와 혀의 위치가 이동하지 않고 발화가 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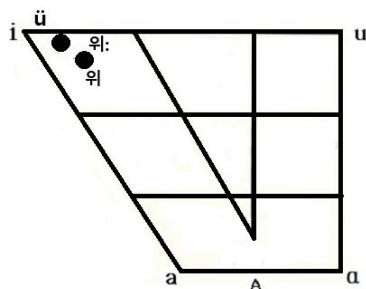
9) “下雨[xiàyǔ]”의 발음이 중국인에게는 “下尾[xiàwěi]”로 들리고, “鱼[yú]”의 발음은 “围[wéi]”로 들린다고 한다. 《韩国人学习汉语语音的偏误及分析》, 華中師範大學碩士, 2007, 8쪽.

10) 朱川, 《外国学生汉语语音学习对策》, 105쪽 참조.

앞에서 지적한 한국 학습자들의 잘못된 발음의 예는 그 원인을 살펴보면, 먼저 입술을 둥글게 하여 [y]를 발음하고 난 뒤에 곧바로 입술의 형태가 편평하게 바뀌어 전설고모음 [i] 혹은 반모음 [j]의 발음으로 이어져 처음과 끝의 음가가 달라져 이중모음이 되기 때문이다. 이 같은 현상은 전설고모음 /ü/와 유사한 한국어 /위/의 발음 변화와 관계가 있는 듯하다.

/위/는 중세국어 시기에는 이중모음이었는데, 20세기 초를 전후해서 단모음으로 변했다가 다시 지역과 환경에 따라서 이중모음으로 발화되기 시작하여 최근에는 대부분 지역에서 이중모음으로 발음되고 있다. 이호영(1996:122)에 의하면 이중모음 /위/를 조음할 때는 단모음 /위/와 /이/를 연이어 발음하되 /위/를 매우 짧게 발음한다고 한다. 예를 들면, ‘위성, 더위, 귀납법, 다람쥐, 가위질’에서와 같이 ‘위’는 ‘위이’, ‘귀’는 ‘귀이’, ‘쥐’는 ‘쥐이’로 연이어 발음이 되는 것을 보면, 왜 한국인이 단모음 /ü/의 발음을 이중모음 [wi]로 발음하는지, 심지어는 ‘雨’[yǔ](비)가 2음절 ‘雨衣’[yǔyī](비 옷)로 발음하는지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때문에 단모음 /ü/를 정확히 발음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이중모음으로 발화되는 /위/의 습관에서 벗어나 단모음 /위/부터 정확히 발음할 수 있도록 연습해야 한다. 먼저, 이호영(1996:109)이 제시한 원순 전설 고모음 /위/의 모음 사각도를 보면,¹¹⁾ 단음 ‘위’와 장음 ‘위:’의 혀 위치를 살필 수 있는데, 단음으로 발음될 때보다 장음으로 발음될 때 기본 모음 /ü/[y]에 더 가까운 음가로 발음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장음으로 길게 ‘위:’로 발음한다면 /ü/의 발음에 좀 더 접근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단모음 /위/로 발화되는 한국어 단어를 보면, ‘쉬다, 쉽터, 쉽다, 휘발유’ 등과 같은 단어 속의 /위/는 처음부터 끝까지 입술모양의 변화가 없이



11) 이현복(1989:23)의 모음 사각도에는 /위/가 표시되어 있지 않다.

동일한 음가로 발화되고 있다.¹²⁾이 단어들 중의 ‘쉬’와 ‘휘’를 길게 ‘쉬:’와 ‘휘:’라고 발음을 해보면 짧게 ‘쉬, 휘’라고 발음하는 것보다는 입술과 입안 근육의 긴장도가 높아지면서 입술이 약간 앞으로 더 나오게 됨을 알 수 있다. 이때의 입술, 혀의 위치와 긴장도를 유지하면서 /ü/를 발음하면 정확하게 발음할 수 있게 될 것이다.¹³⁾ 남자 꼬마아이들의 배변습관을 기르기 위하여 변기 앞에서 엄마들이 ‘쉬~’하고 ‘위’를 단모음으로 힘주어 길게 말할 때의 입술과 혀의 위치도 참고할 만한 연습 방법이다.

종합해 보면, 전설원순고모음 /ü/는 단모음이기 때문에 이중모음 [wi], 혹은 /ü+/i/처럼 2음절로 발음하지 않도록 연습을 해야 한다. 연습 방법으로는 단모음 /위/로 발화되는 한국어 단어를 이용하여 입술모양의 변화 없이 발음할 수 있게 하고, 동시에 발음기관을 긴장시켜 길게 장음으로 ‘위:’를 발음하도록 한다면 정확하게 /ü/의 발음을 습득할 수 있을 것이다. /ü/는 긴장도와 장음을 나타내기 위하여 2음절 ‘위위’라고 표기하고, 개음과 운미는 1음절 ‘위’라고 표기한다. 실제 한 음절 속에서는 주요모음으로 발화하기 때문에 입모양의 변화 없이 ‘위:위’와 같이 2음절 이상인 장음으로 연습하도록 한다.

3. 단운모 /o/

吳宗濟(1992:85)는 /o/의 실제의 음은 국제음성부호 [o]보다 약간 낮아서 여기에 부가부호 붙여 [o_ɾ]로 나타내었다. 이것은 [o]와 [ɔ]의 중간 소리로 엄익상(2005:73)은 [o]의 이완음인 [ɔ]로 표기할 수도 있다고 했지만 우리에게는 역시 쉽지 않은 발음이다. [o]의 둥근 입모양으로 혀 위치를

12) 서울지역 사람들이 ‘죽이다’를 ‘꺾이다’라고 말하는데, /우/가 /위/로 바뀔 때의 /위/도 입술모양이 변화되지 않는 단모음 /ü/ 발음 연습에 참고가 될 수 있다.

13) 경남 방언 사용자들은 ‘귀신’을 ‘기신’이라고 하는 것처럼, ‘위’를 대부분의 경우 ‘이’로 발음하고 있기 때문에 단모음으로 발화되는 ‘위’를 먼저 연습을 할 필요가 있다. 이호영(1996), 122쪽 참조.

약간 낮추고 [ɔ]를 발음하면 되는데, 多[duo]의 뒷부분에 짧게 발음되는 ‘어’ 정도의 음으로 이해할 수 있다. 吳宗濟는 또한 영어 /o/의 실제발음이 [oɔ]로 이중모음화 된 것과 비교하여, 중국어의 /o/는 혀의 위치와 입술의 형태가 변하지 않고 발음할 수 있는 단모음임을 밝히고 있다. 다만 중국어는 순음 자음인 b[p], p[pʰ], m[m], f[f]의 뒤에 /o/가 출현할 경우, 중간에 활음 [ɔ] 생겨서 실제로는 [pɔoɪ], [pʰɔoɪ], [mɔoɪ], [fɔoɪ]처럼 발음이 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吳宗濟는 단모음 /o/가 순음 자음 뒤에 붙을 때는 중간에 활음이 생겨나서 실제로는 이중모음처럼 발음이 되기는 하지만, 영어 /o/의 변화처럼 이중모음화 된 것은 아니고, 중국어의 /o/는 여전히 단모음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朱川(1997:107)도 이 중간 활음 [ɔ]는 자연스럽게 붙는 것으로 시간도 짧고 음색도 모호한 것이기 때문에 2개 모음요소로 이루어진 이중모음이 아니고 단모음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 때문에 曹文(2002:58)는 단모음 /o/는 순음 자음 뒤에 출현할 때 중간에 활음 /u/[ɔ]가 붙기 때문에 ‘bo, po, mo, fo’는 ‘buo, puo, muo, fuo’로 읽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王理嘉(2005:6)는 ‘bo, po, mo, fo’에서의 운모는 음운 계통적으로 단지 합구호(合口呼)에 속하는 이중모음인 운모 /uo/만 있고 단모음 /o/로 충당하는 운모는 없음을 밝히고 있다. 즉, 순음 자음 ‘b[p], p[pʰ], m[m], f[f]’의 뒤에 붙는 /o/는 단모음이 아니고 이중모음 /uo/의 생략형이며, 이것은 주음부호 병음 설계 때에 ㄅ(b)와 ㄨo(uo)의 결합에서 ㄨ(u)를 생략 했고, 한어병음 위원회에서도 자모의 용량을 고려하여 주음부호의 생략법을 따랐다는 것이다. 원순모음 /u/는 순음 자음과 발음부위가 서로 같고, 바로 뒤에 약간 낮은 원순 모음이 붙어 있어서 자음·운복과 결합하여 함께 발화하기 때문에 /u/를 생략할 수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다시 정리하면 /o/ 자체는 단모음이지만 순음 자음 뒤에 붙는 /o/는 이중모음 /uo/의 생략형이라는 얘기이다.

순음 자음 뒤에 /o/가 단모음으로, 순음 자음과의 사이에 활음 u[ɔ]가 붙어 ‘uo’가 되는 것이 아니라, 순음 자음 뒤의 /o/는 이중모음 /uo/에서

개음이 생략된 형태로써, ‘bo, po, mo, fo’는 실제로 ‘buo, puo, muo, fuo’로 표기하고 발음해야 한다는 것은 지금까지 논의되고 있는 몇 가지 의문을 해소할 수 있게 된다. 엄익상(2005:73)에서와 같이 /o/의 정확한 음가를 단모음인 [o]로 가르쳐야 할지, 아니면 이중모음의 [ɔ]로 가르쳐야 할지 고민할 필요가 없어지고, 이미경(2006:237)에서와 같이 단모음 /o/를 이중모음으로 규정하고 중국어의 음성 음운 체계의 재정립을 요구할 필요도 없어진다. 왜냐하면 단모음 /o/를 운모로 삼는 단어는 ‘哦’나 ‘喔’와 같은 감탄사에 한정되어 있을 뿐이고 일반적으로는 단지 이중모음 /uo/ 중에 출현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陳宏(2008)은 한어병음의 ‘bo, po, mo, fo’를 ‘buo, puo, muo, fuo’로 표기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이중모음 /uo/는 /u/('우우')와 /o/('어어')의 결합으로 이중모음 /워/가 과도음으로 두 모음을 연결하여 ‘우워어’로 발음이 된다.¹⁴⁾ 순음 자음 ‘b, p, m’와 결합하면 ‘뿌워어’와 ‘푸워어, 무워어’로 표기하고 주요모음을 길게 발음해야하기 때문에 ‘뿌워:어’와 ‘푸워:어, 무워:어’로 발음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uo/의 개음 u는 [u]가 아니고 /우/와 /오/의 중간인 변이음 [ɔ]이기 때문에 ‘뿌워어’와 ‘포워어, 모워어’로 표기하고 ‘뿌워:어’와 ‘포워:어, 모워:어’로 발음할 수도 있다. 특히 fo는 순치음의 특성상 ‘오워:어’에 가깝게 발음해야 [f]의 발음을 보다 명확하게 드러낼 수 있다. 어쨌든 실제로는 /우/와 /오/를 원순의 형태로 힘을 주어 발음하는 것이 아니고 입술을 이완시켜 가볍게 발음하기 때문에 실제 발음에서는 한글의 ‘우’와 ‘오’의 표기 차이처럼 그렇게 큰 차이가 발생하지 않는다. ‘우워어’ 혹은 ‘오워어’의 표기는 이전의 한글 표기법과 같이 개략전사를 한다면 ‘우어’ 혹은 ‘오어’로 표기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실제 발음은 중간에 과도음으로 이중모음인 ‘워’가 연결되어 ‘우워:어’ 혹은 ‘오워:어’로 발음해야한다는 것을 강조해야 한다.

종합해보면, /o/는 [o]와 [ɔ]의 중간 소리로 [oɪ]로 음을 표기할 수 있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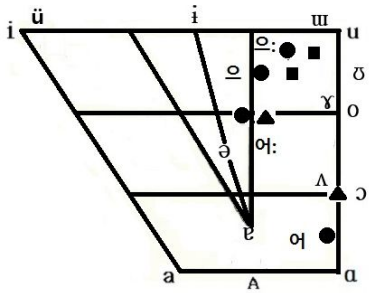
14) V.1 개음과 단모음의 결합 /uo/ 참조.

데, [o]의 이완음 [ɔ]로도 표기가 가능한 단모음이다. 음절 중에서는 감탄사 ‘哦’나 ‘喔’의 운모로 사용되고, 일반적으로는 이중모음 /uo/ 중에서만 출현한다. 이 때문에 순음 뒤에 붙는 ‘o’는 단모음이 아니고 이중모음 /uo/의 생략된 형태로 ‘우위어’ 혹은 ‘오위어’로 표기하고 발음할 수 있다. 사실 순음 자음 뒤에 ‘o’가 단모음으로 순음 자음과의 사이에 활음 u[ɨ]가 붙어 ‘uo’라고 발음해야한다는 것이나, 순음 자음 뒤의 ‘o’는 단모음이 아니고 이중모음 /uo/에서 개음이 생략된 것이라고 해도 발음은 [ɔ]로 동일하다. 주의할 점은 순음 자음 뒤에 붙는 ‘o’를 단모음으로 여기면서 실제로는 이중모음 ‘오어’로 표기하고 ‘뽀어, 포어, 모어’로 발음해서는 안 되고, 또한 단모음 ‘어’ 혹은 ‘오’로 표기하고 ‘뽀, 피, 머, fo[fo]’ 혹은 ‘뽀, 포, 모, folfo’로 잘못 발음해서도 안 된다는 것도 교육과 학습에 강조해야 할 사항이다.¹⁵⁾

4. 단운모 /e/

吳宗濟(1992:87)는 /e/[ɣ]가 /o/와 짝을 이루는 비원순 모음이지만, 실제 발음에서는 가벼운 [ɿ]를 동반하여 [ɣɿ]로 표기할 수 있다고 했다. 林燾·王理嘉(1992:48)는 먼저 [o]를 발음하고 난 뒤에 둥근 입술을 옆으로 벌리면 [ɣ]가 된다고 하였다. 또한 /e/의 혀 위치는 /o/처럼 낮지만 /o/보다 좀 더 중앙에 치우쳐있고,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작은 이동이 있는데 이 이동은 제4성일 때 두드러진다고 하였다. 정밀전사는 [ɤ̞ʌ]로 표기했다. 이것은 우리의 ‘오어’ 정도의 발음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호영(1996:112)의 /으/와 /어/ 모음 사각도를 보면, 먼저 /으/의 혀 최고점은 중설이나 후설에 형성되며, 좁힘 점은 후설과 연구개 사이에 형성되고, 음

15) 엄익상(2005:74)은 林燾·王理嘉의 《語音學教程》에 의거하여 “활음 [ɨ]의 존재는 학생들에게 굳이 강조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라고 했는데, 오히려 학생들에게 활음 내지는 개음의 존재를 강조해야만 순음 자음에 붙는 o를 단모음으로 발음하는 오류를 범하지 않게 될 것이다.



가는 장음 ‘으:’로 발음될 때 [u] 모음에 더 가깝게 발음된다고 했다.¹⁶⁾ 다음에 /어/는 혀의 최고점이 중설에 형성되며, 좁힘 점은 혀뿌리와 인두벽 사이에 형성되고, 장음 ‘어:’의 음가는 중앙 모음 [ə]와 비슷하지만 발화 때에 중설을 입천장에 조금 더 접근시켜한

다. 짧은 단음 ‘어’는 [ʌ]와 [ɐ]의 중간 음가로 발음된다.¹⁷⁾

그러나 ‘어’의 ‘으’는 吳宗濟(1992:86)의 지적처럼 지나치게 혀의 뒤쪽 위에서 [u]에 접근시켜서는 안 되고, 혀의 뒤쪽 낮은 곳에서 조음해야 한다. 이 때문에 반고모음 [ɤ]는 우리의 ‘으’보다 더 뒤쪽 낮은 곳에서 발음이 될 수 있도록 턱을 좀 더 내려 뒤로 붙여서 ‘으’로 발화해야 한다.

‘어’의 ‘어’는 한국어의 단음 /어/와 같거나 약간 높아서 후설반저모음으로 짧고 가볍게 발음해야 한다. 이 때문에 입술 형태의 변화가 거의 없이 ‘으’에서 ‘어’로 입안의 혀 위치만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약간 미끄러지며 이동시키는 음이어야 한다. 이것은 /e/가 단모음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러나 한국 학습자들 중에는 입안에서의 이동음을 생략하고 단모음인 /어/[ɐ]로만 길게 발음하여, ‘de, te, ge, ke’를 ‘떠, 터, 꺼, 커’로 읽는 경우가 많다.¹⁸⁾ 이미경(2006: 236)도 /e/의 음향측정 결과 한국인은 단모음 [ə]로 발음하고 있고, 중국인은 [i]에서 [ə]까지 혹은 [ə]에서 [ɐ]까지 음의 변화가 있어 이중모음으로 발음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그렇다면

16) 이현복(1989:23)의 모음 사각도에는 ‘으:’와 ‘어:’의 위치(■)가 이호영(●)보다 뒤쪽으로 표시되어 있다.

17) 이현복(1989:23)의 모음 사각도에는 ‘어:’(▲)의 위치는 이호영(●)보다 뒤쪽이며, ‘어’(▲)는 이호영(●)보다 위쪽으로 표시되어 있다. 그러나 이호영은 사람에게 따라서 /어/의 음가가 후설 반저음 [ʌ]로 발음되기도 한다고 하여, 이현복의 ‘어’ 표시와 동일함을 지적하기도 했다.

18) 특히 한국어 단모음 /어/와 /으/를 구별하지 못하여 ‘승’을 ‘정’, ‘근’을 ‘건’으로 발음하는 경상도 방언 지역 학습자들에게는 쉽지 않은 발음이다.

먼저 ‘으’를 발음한 후에 턱을 내리고 ‘어’를 발음하여 혀의 위치뿐만 아니라 입술의 모양도 변화시켜서 완전한 이중모음으로 교육해야 하는 것일까? 이러한 의문은 음향측정의 결과를 통해서 혀 위치 변화에 따른 이중모음의 발화현상은 밝혀졌지만 그것이 입술모양의 변화까지 동반하는 진정한 이중모음인지는 언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발생한다. 그러면 어떻게 교육하고 학습해야 한국어 모음 /어/의 방해에서 벗어나 林燾·王理嘉(1992: 48)가 지적한 것처럼 혀의 위치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하며 변화되는 단모음 /e/의 발음을 정확하게 습득할 수 있을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단모음 /e/ 자체는 한국어의 단모음과는 다르게 상대적으로 길게 발음해야 한다는 사실을 상기하는 것이다. 이것은 ‘哥哥’[gēgē]에서와 같이 앞부분 [gē]의 /e/[ɤ]는 운음절일 때 장음으로 길게 ‘으:어’로 발음이 되지만 경성일 때는 /e/[ɤ]가 단음으로 짧고 가볍게 ‘어’[ə]로 발음되어 하나의 변이음이 되는 것에서도 알 수 있다.

한국어 단모음 /어/의 장음인 ‘어:’의 음가를 ‘으:’라고 주장했던 초기의 학자들처럼¹⁹⁾ 장음 ‘어:’를 발음했을 때에 자연스럽게 뚜렷한 입술모양의 변화 없이 먼저 짧고 가벼운 ‘으’ 발음과 함께 ‘어’로 이동하여 발화되는 현상과 비교해보면 중국어 단모음 /e/의 발음 교육과 학습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거지’의 ‘거’는 장음의 ‘어:’이고, ‘거품’의 ‘거’는 단음의 ‘어’이다. 따라서 장음의 ‘어:’는 그 음가가 ‘으’[ɯ]에서 ‘어’[ə]로 미끄러지는 발음 ‘그어지’로 중국어 /e/[ɤ]와 흡사한 발음이 된다.²⁰⁾ 이 장음 ‘어:’의 발음연습에서 짧고 가벼운 ‘으’부터 ‘어’까지 미끄러지는 소리를 일깨워 주의를 시킨다면 보다 쉽게 /e/의 발음에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이때에 ‘으’부터 ‘어’까지 미끄러지기 때문에 앞쪽이 뒤쪽보다 길게 ‘으으어’로 발

19) 이진호, 《한국어의 표준발음과 현실발음》, 아카넷, 2012, 156쪽 참조.

20) 「거지」는 한자인 「乞」+「어치」에서 「거러치」>「거러지」>「거어지」로 변했다고 한다. 여기 「거어지」에서 「거지」의 「거」자가 왜 장음으로 읽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살필 수 있다. 또한 경기도지역 방언에서는 「거지」를 「그지」라고 발음하는 것에서도 ‘으’와 ‘어’의 상관관계를 엿볼 수 있다.

화되어야 한다는 점도 중요하다. 이 때문에 전체의 음절 연습에서는 앞부분이 길고 뒷부분이 짧게 ‘으:어’로 연습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이상과 같이 중국어 단운모를 구성하고 있는 단모음 /a, i, u, e, o, ü/의 학습과 교육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중국어 단모음과 한국어 단모음의 차이는 혀의 높낮이와 위치, 입술의 원순도가 전혀 다른 것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강조해야 할 부분은 중국어 단모음은 한국어 단모음과는 달리 긴장음으로 길게 발음해야 한다는 차이점이다. 지금까지의 중국어 한글 표기법에는 모두 단음절로 표기를 했지만, 본고에서는 이 같은 차이점을 나타내기 위하여, /a, i, u, ü/를 각각 ‘아아, 이이, 우우, 위위’로 다르게 표기했고, /e/는 단모음이지만 ‘으어’로 표기했다. /o/는 ‘오’와 ‘어’의 중간음으로 표기하기 쉽지 않지만, 순음 자음 뒤에 붙는 /o/는 이중모음 /uo/에서 개음이 생략된 형태로써 ‘우위어’ 혹은 ‘오위어’로 표기했다. 실제 발음 연습에서는 2음절 이상으로 ‘아:아, 이:이, 우:우, 위:위, 으:어, 오위:어(우위:어)’로 길게 긴장음으로 연습해야함을 지적했다. 이와 같은 표기와 발음연습은 지금까지의 중국어 한글 표기법에서 단음절로 표기한 것과는 달리 긴장음으로 길게 발음해야함을 나타낼 수 있는 방법으로 단운모의 학습과 교육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Ⅲ. 複韻母와 鼻韻母의 학습과 교육

운모는 단운모와 복운모, 그리고 비운모와 결합운모로 구분할 수 있다.²¹⁾ 복운모는 두 모음이 긴밀하게 화학적으로 결합되는 ‘ai, ei, ao, ou’의 4개가 있다.²²⁾ 비운모는 모음과 자음이 결합하여 구성되는 ‘an, en,

21) 林燾·王理嘉는 운모를 단운모·복운모·비운모로 구분하고, 복운모는 다시 前響複韻母·後響複韻母·中響複韻母 등 한어병음방안으로 분류했다. 본고에서는 주음부호의 분류법에 따라서 먼저 단운모·복운모·비운모로 구분하고, 다시 개음 /i, u, ü/와 결합한 단운모·복운모·비운모를 결합운모로 분류했다.

22) ai, ei, ao, ou는 이중모음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ia, ie, ua, uo, ü와는 다르게

ang, eng'의 4개가 있다. 결합운모에는 개음과 단모음이 결합한 이중모음 'ia, ie, ua, uo, üe'의 5개가 있고, 개음과 이중모음이 결합한 'iao, iou, uai, uei'의 삼중모음 4개가 있다. 또한 개음 /i/와 비모음이 결합한 'ian, in, iang, ing'의 4개; 개음 /u/와 비모음이 결합한 'uan, uen, uang, ong'의 4개; 개음 /ü/와 비모음이 결합한 'üan, ün, iong'의 3개가 있다.

이상과 같은 복운모와 비운모, 결합운모의 학습과 연습에서 중요한 것은 역시 한 음절을 길게 발음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 음절을 길게 발음하기 위해서는 구성하고 있는 음소들이 하나 씩 제대로 발화가 되어 전체적으로 길게 발음이 되어야한다. 그러나 한국인은 모어의 영향으로 복모음을 제대로 길게 발음하지 못하고 있다. 4장에서는 복운모와 비운모를 먼저 살펴보고 결합운모는 다음의 5장에서 개음의 발음과 함께 살펴보기로 한다.

1. 복운모

ai는 전설저모음 [a]와 전설고모음 [i]로 구성된 이중모음이지만 실제 발음에서는 저모음 [a]에서 시작하여 고모음 [i]에는 도달하지 못하고 근고모음 [ɨ]까지밖에 도달하지 못하는 발음이다. 단모음 /a/에서도 언급했지만 근고모음 [ɨ]는 한국어의 단모음 /이/와 혀의 위치가 비슷한 음으로 가볍고 짧게 '이'로 표기하고 발음하며, /a/는 길게 발음해야하기 때문에 '아아'로 표기한다. 이 모음의 시작과 끝을 나타내면 '아아이'로 표기할 수 있다. 물론 실제 발음은 '아'를 길고 크게, '이'는 짧고 가볍게 '아아:이'로 연습한다.

ei는 전설반고모음 [e]와 전설고모음 [i]로 구성된 이중모음이지만 실제

두 모음 사이 중간에 과도음이 발생하지 않고, 뒤 모음이 앞 모음에 종속되어 긴밀하게 결합되어 있다. 주음부호도 하나의 부호 'ㄹ, ㄷ, ㅅ, ㅈ'로 표기하고 있다. 林燕慧처럼 운미를 주요모음의 음절로 본다거나, 엄익상처럼 운미를 주요모음 뒤에 붙는 활음이라고 보는 견해는 복운모 ai, ei, ao, ou의 앞뒤 모음이 긴밀하게 결합하여 운미인 뒤 모음 /i/, /u/가 주요모음 /a/, /e/, /o/에 종속적인 것임을 나타낸다.

발음에서는 반고모음 [e]에서 시작하여 ai에서의 /i/와 같이 근고모음 [i]까지 도달하는 발음이다. /e/는 길게 ‘에에’로, [i]는 짧게 ‘이’로 발음하기 때문에 ei는 ‘에에이’로 표기할 수 있다. 실제 발음은 ‘에’를 장음으로 ‘에에:이’로 연습한다. 자음 g, p와 결합한다면 ‘께에이’, ‘페에이’로 표기하고 발음할 수 있다. 이 같은 표기는 이전의 한글 표기법에서 ‘에이’라고 표기하는 것보다 /e/를 길게 발음해야하는 것을 나타낼 수 있을 것이다.

ao는 후설저모음 [a]와 후설고모음 [u]로 구성된 이중모음이다. 한어병음표기는 au이지만 an과의 혼란 방지를 위해서 ao로 표기했다. 실제 발음에서는 [a]에서 시작하여 반고모음 [o]를 거쳐 고모음 [u] 밑의 이완음 [ɔ]까지만 도달하는 음이다. 주의할 점은 전설저모음 [a]와 중설저모음 [A]보다는 입을 더 벌리고 ‘아:[a]로 길게 발음한 뒤에 ‘오’[o] 발음을 거쳐 [ɔ]에서 끝나야지 ‘오’에서 끝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때에 [ɔ]는 ‘오’와 ‘우’의 중간의 이완음으로 거의 발화되지 않지만 음절이 끝나는 입모양은 ‘오’가 아닌 ‘우’에 가깝게 만들어야 한다. 이에 /a/는 길게 발음해야 하기 때문에 ‘아아’로 표기한다. /o/는 ‘우’라는 발음이 거의 발화가 되지 않기 때문에 ‘오’로 표기한다. 이 둘을 결합하여 ‘아아오’로 표기할 수 있다. 실제 발음은 ‘아’를 길고 크게, ‘오’는 짧고 가볍게 ‘아아:오’로 연습한다. 물론 끝에 ‘오’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고 ‘오’ 뒤에 짧고 가벼운 ‘우’의 입모양으로 끝을 맺어야함을 강조해야한다.

ou는 중앙모음 [ə]에서 시작하여 고모음 [u]까지 혀의 위치를 접근시키다가 이완음 [ɔ]에서 멈춘다. ou의 /u/[ɔ]는 ao의 /u/[ɔ]와는 달리 중간에 [o]를 거치지 않고 중앙에서 곧바로 [ɔ]로 상승하여 멈추기 때문에 ‘우’로 표기하고 짧고 가볍게 발음한다. /o/[ə]는 길게 발음해야하기 때문에 ‘어’로 표기하고, 짧고 가벼운 이완음 /u/[ɔ]는 ‘우’로 표기한다. 이 둘을 결합하여 ‘어어우’로 표기할 수 있다. 실제 발음은 ‘어’를 길고 크게, ‘우’는 짧고 가볍게 ‘어어:우’로 발음한다. 자음 d, t와 결합하면 ‘떠어우’, ‘터어우’라고 표기하고 ‘떠어:우, 터어:우’로 연습한다. 주의해야 할 점은 /o/를 영어 o[oɔ]로 인식하고 ‘또우, 투우’라고 발음하지 않도록 한다.²³⁾

2. 비운모

an은 전설저모음 /a/[a]와 설첨 자음 /n/이 결합된 운모로써, 입모양과 혀의 위치는 복운모와 같이 발음의 시작과 끝이 다르다. 단모음 /a/는 ‘아’로 표기하고 뒤에 자음 /n/(/ㄴ/)을 붙여서 ‘아아안’으로 표기하고 ‘아아:안’으로 연습한다.

ang은 후설저모음 /a/[a]와 설근 자음 /ng/[ŋ]이 결합된 운모로써, 단모음 /a/는 ‘아아’로 표기하고 뒤에 자음 /ng/(/ㅇ/)을 붙여서 ‘아아앙’으로 표기하고 ‘아아:앙’으로 연습한다. 혀끝이 입천장에 붙지 않게 발음해야 an의 발음과 구별될 수 있음에 주의해야한다.

en은 후설반고모음 /e/의 변이음 [ə]와 설첨 자음 /n/이 결합된 운모이다. 단모음 /e/는 앞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온음절일 때 장음으로 발음하여 ‘으:어’로 발음이 되지만, 경성일 때는 단음을 발음하여 변이음 /어/로 발음되는 모음이다. en에서 /e/를 단음으로 발음한다면 /e/의 변이음 /어/[ə]와 /n/(/ㄴ/)의 결합으로 짧은 음절의 ‘엔’이 된다. 그러나 이 음절 역시 장음으로 길게 발음해야 하기 때문에 /e/의 장음 ‘으어’와 /n/(/ㄴ/)의 결합으로 ‘으어엔’로 표기하고 ‘으어:엔’으로 발음해야 할 것이다.

eng은 후설반고모음 /e/의 변이음 [ə]와 설근 자음 /ng/[ŋ]이 결합된 운모이다. en과 동일하게 eng를 장음으로 길게 발음해야 한다면 /e/를 장음 ‘으어’로 발음하고, /ng/[ŋ]의 결합으로 ‘으어영’으로 표기하고 ‘으어:영’으로 발음해야할 것이다. 혀끝이 입천장에 붙지 않게 발음해야 en의 발음과 구별될 수 있음에 주의해야한다.

이상과 같이 복운모와 비운모의 발음을 3음절로 표기해보면 단음절 혹은 2음절로 표기했던 이전의 표기법보다는 길게 장음으로 발음해야한다는 것을 더 잘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 23) 한어병음만으로 중국어를 공부한 최근의 학습자들은 dou, tou의 발음을 ‘do+u’, ‘to+u’로 인식하고 ‘또오’와 ‘토오’는 길게, ‘우’는 짧게 ‘또오우, 토오우’로 발음하는 경향이 있다.

IV. 개음의 발음 곤란과 학습

많은 중국어 발음교육 관련 저술에서 지적하고 있듯이 한국 학습자들은 중국어 개음을 정확히 발음하지 않는 경향이 있는데, 그 이유는 가장 근접한 한국어 모음으로 인식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엄익상(2005:75)은 그 예로 ‘ie’는 [에], ‘ia’는 [아], ‘yue’는 [웨], ‘ua’는 [와], ‘uo’는 [워]로 발음하기 쉽다고 지적하며, 개음을 정확하게 발음하는 습관을 기르도록 교육해야 한다고 하였다. 왜냐하면 중국어의 음절을 구성하는 모음 30여개 중에 개음과 결합한 음절이 20개로 반수 이상을 점하고 있기 때문이다. 개음을 정확히 발음하지 못한다는 것은 중국어를 중국어답지 못하게 발음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개음을 정확하게 발음하는 습관을 기를 수 있을까? 아쉽게도 지금까지는 개음의 정의와 발음에 대한 논의는 많았지만 그것을 어떻게 가르치고 배워야 할지에 대한 새로운 교육 방법의 제안은 드물었다.

1. 개음과 단모음의 결합

먼저, 한국의 중국어 학습자들이 왜 중국어 개음을 정확히 발음하지 않는지 이유를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의 모음체계는 2음절 이중모음화의 축약과정에서 한 음절이 반모음화 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지만, 중국어는 우리와는 달리 단모음 2개의 음가가 그대로 유지되어 발화가 되기 때문이다. 특히 따라서 음절 속에서 앞 모음은 개음이 되고 뒤 모음은 운복이 되어, 보다 더 분명하게 장음으로 발화가 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우리의 /야/는 /이/와 /아/의 결합이지만 축약의 과정을 거쳐 /이/는 반모음 [j]가 되고, 단모음 /아/와의 결합으로 이중모음 /야/[ja]가 된다. 일반적으로 한국인의 언어생활에서 반모음 [j]는 거의 인식하지 못하고 단지 결합하여 이중모음화가 된 과도음 /야/만을 발음하고 있을 뿐이다. 이에 반하여, 중국

어는 /i/와 /a/의 결합으로 ia[iA]가 된다. 비록 /i/는 개음으로 주요모음 /a/에 비해서 짧은 음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우리처럼 반모음이 되지는 않고 모두 분명히 발화가 되어야 한다. 이 때문에 우리가 중국어를 발음할 때 ia[iA]를 한국어의 ‘야[ja]로 인식하고 전체적 음절의 길이를 짧게 발음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앞 단모음 설명에서도 언급했던 것과 같이 /i/를 ‘이이’로, /a/를 ‘아아’로 표기하고, 앞뒤 모음을 결합하면, ‘이이’의 뒷부분 ‘이’가 ‘아아’의 앞부분 ‘아’와 이어지면서 이중모음 /야/가 과도음이 되어 앞뒤를 연결한다. 즉 /i/와 /a/의 결합은 ‘이아야’로 발음하면, 개음 ‘이’를 확실하게 발음할 수 있게 된다. 물론 이 중에서 주요모음 부분인 ‘야’가 ‘이’나 ‘아’보다는 더 크고 길게 ‘이야:아’로 미끄러지며 전체가 하나로 발화돼야 한다는 점도 강조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 또한 3음절 사이의 경계가 명확한 ‘이·야·아’로 발음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개음 /i/와 결합한 ie 역시 한국어 ‘에’ 발음 때문에 한국인 학습자에게는 개음 /i/가 발화되기 어려운 결합운모이다. /i/는 ‘이이’로, /e/는 ‘에에’로 표기할 수 있고 이 2개의 모음이 결합하면 중간에 ‘이’와 ‘에’의 이중모음 /예/가 과도음으로 ‘이’와 ‘에’를 연결하여 ‘이에에’로 표기하고 연습한다. 실제 발음은 주요모음을 길게 ‘이에:에’라고 한음절로 미끄러지며 발음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밖에 ua는 반모음 [w]와 단모음 /아/의 결합인 한국어 모음 /와/[wa]로 인식하고 짧게 ‘와’로 발음하기 때문에, 개음 /u/를 분명하게 발화하기 위해서는 /u/('우우')와 /a/('아아')의 결합에서 이중모음 /와/가 과도음으로 두 모음 /우/와 /아/를 연결하여 ‘우와아’로 발음해야 한다. 이 역시 주요모음은 크고 길게 ‘우와:아’라고 발음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또한, 개음 /u/와 결합한 uo 역시 한국어 ‘위’ 발음 때문에 한국인 학습자에게는 개음 /u/가 발화되기 어려운 결합운모이다. /u/는 ‘우우’로 표기할 수 있고, /o/는 ou에서의 /o/와 동일하게 [a]를 길게 발음해야하기 때문에 ‘어’로 표기할 수 있다. 이 2개의 모음이 결합하면 중간에 ‘우’와 ‘어’의 이중모음 /위/가 과도음으로 ‘우’와 ‘어’를 연결하여 ‘우위어’로 표기한다. 실

체 발음은 주요모음을 길게 ‘우위:어’라고 발음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개음 /ü/와 결합한 üe는 반모음 [ɥ]와 단모음 /에/의 결합인 한국어 모음 /웨/[ɥe]로 인식하고 ‘웨’로 발음하기 때문에, 개음 /ü/를 분명하게 발화하기 위해서는 /ü/('위위')와 /e/('에에')의 결합에서 이중모음 /웨/가 과도음으로 두 모음 /위/와 /에/를 연결하여 ‘위웨에’로 표기한다. 주요모음을 크고 길게 ‘위웨:에’로 발음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면, 역시 정확한 개음 /위/를 분명하게 발화할 수 있게 될 것이다.

2. 개음과 이중모음·비모음과의 결합

iao는 개음 /i/와 이중모음의 복운모 ao의 결합이다. /i/는 ‘이이’로, ao는 ‘아아오’로 표기한다면 이 두 음의 결합은 ‘이’와 ‘야’의 이중모음 /야/가 중간에 과도음으로 앞뒤를 연결하여 4음절 ‘이야아오’로 표기가 된다. 여기에서 ‘야이’는 주요모음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야’는 ‘야’를 장음으로 발음했을 때에 뒤 따라오는 음이므로 생략할 수 있어 ‘이야오’로 표기하고 ‘이야:오’로 연습한다는 것을 강조하면 3음절로도 표기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iao를 2음절 ‘야오’로 표기하게 되면 ‘i+ao’의 음절이 ‘ia+o’의 음절로 혼동될 수 있어 개음 /i/가 전체 음절에서 발화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점도 주의해야 할 것이다.

iou는 개음 /i/와 이중모음의 복운모 ou의 결합이다. /i/는 ‘이이’로, ou는 ‘어어우’로 표기하면 이 두 음의 결합은 ‘이’와 ‘어’의 이중모음 /여/가 중간에 과도음으로 앞뒤를 연결하여 ‘이어어우’가 된다. iao의 경우가 마찬가지로 ‘여어’는 주요모음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어’는 ‘여’를 장음으로 발음했을 때에 뒤 따라오는 음이므로 생략할 수 있어 ‘이어우’로 표기하고 ‘이어:우’로 연습한다는 것을 강조하면 이것 역시 3음절로 표기할 수 있게 된다. iou는 앞에 자음이 오게 되면 /o/를 생략하고 /-iu/로 표기하는데, 이것을 ‘이우’로 발음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iang은 개음 /i/와 비모음 ang의 결합이다. /i/는 ‘이이’로, ang는 ‘아아

양'으로 표기하면 이 두 음의 결합은 '이'와 '아'의 이중모음 /야/가 중간에 과도음으로 앞뒤를 연결하여 '이아아양'이 된다. iao의 경우와 같이 '이아양'으로 표기하고 '이아:양'으로 발음한다는 것을 강조하면 3음절로 표기할 수 있게 된다.

ian은 /i/와 /an/의 결합으로 '이아안'이 되어야 하는데, /a/가 자음운미 /n/의 영향으로 [ŋ]가 된다. 다시 '이'와 '에'의 이중모음 /예/가 두 모음을 연결하여 '이에엔'으로 표기하고 '이에:엔'으로 연습한다.

in과 ing은 각각 /i/와 /en/, /i/와 /eng/의 결합인데, 자음 운미 /n/과 /ng/의 영향으로 /e/가 탈락한 발음이다. 그러나 전체의 음절의 길이는 줄지 않는다. in은 '이이'와 'ㄴ'의 결합으로 음절의 길이를 확보하기 위하여 '이인'이 아니고 '이이인'으로 표기하고 '이이:인'으로 발음하며, ing은 in과 같이 '이이잉'로 표기하고 '이이:잉'으로 연습한다.

이상과 같이 개음과 이중모음·비모음의 결합을 3음절로 표기하고 발음하게 되면 '개음+주요모음+운미' 형태의 중국어 전통적인 운모구조와 동일하게 되어 개음을 정확하게 발음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물론 주요모음이 개음과 운미 보다는 길게 발음이 되어야하기 때문에 실제로 iao는 '이아:오', iou는 '이여:우', iang은 '이아:양', ian은 '이에:엔', in은 '이이:인', ing은 '이이:잉'으로 미끄러지며 중간에 어떤 경계나 멈춤도 없이 한 음절로 발음한다는 것을 강조해야 한다.

개음 /u/와 결합하는 이중모음과 비모음을 보면, uai는 /u/와 /ai/의 결합이다. /u/는 '우우'로, /ai/는 '아아이'로 표기하면 이 두 음의 결합은 '우와아이'가 된다. 여기에서 '와아'는 주요모음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이중에 '아'는 '와'를 장음으로 발음했을 때에 뒤 따라오는 음이기 때문에 생략할 수 있어 '우와이'로 표기하고 '우와:이'로 발음할 수 있다. uai를 '와이'로 표기하게 되면 'u+ai'의 음절이 'ua+i'의 음절로 혼동될 수 있어 개음 /u/가 전체 음절에서 발화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도 주의해야 할 것이다. uei는 /u/와 /ei/의 결합이다. 두 음을 결합하면 '우웨이'로 표기하고 '우웨:이'라고 발음할 수 있다. uei는 앞에 자음이 오게 되면 /e/를 생략하

고 /-ui/로 표기하는데, 이것을 /우이/로 발음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uan은 ‘우와안’, uang는 ‘우와양’으로 표기하고 ‘우와:안’, ‘우와:양’으로 연습한다. uen은 ‘우우’와 ‘어어언’의 결합으로 /으/는 /우/와 같이 후설고모음이기때, ‘우’와 ‘어’의 이중모음 /위/가 과도음으로 두 모음을 연결하여 ‘우위언’으로 표기하고 ‘우위:언’으로 연습한다. 앞에 자음이 오게 되면 /e/가 탈락하고 ‘우우’와 ‘ㄴ’이 결합하여 ‘우우운’으로 표기하고 ‘우우:운’으로 연습한다. ong는 본래 /u/와 /eng/의 결합으로 앞이 영성모일 때는 ‘우우’와 ‘어어영’의 결합으로 /으/는 /우/와 같이 후설고모음이기때, ‘우’와 ‘어’의 이중모음 /위/가 과도음으로 두 모음을 연결하여 ‘우위영’이라 표기하고 ‘우위:영’으로 연습한다. 앞에 자음이 올 때는 개음 /u/와 /e/가 탈락한 /ng/가 결합하여 ung이 되는데, 한어병음에서는 u와 n의 혼동을 피하기 위하여 u를 o로 바꾸어 ong이 되었다. ‘우우웅’이라고 발음하지 않고 최근에는 대부분 ‘오오웅’에 가깝게 발음한다. /u/는 개음일 때에 변이음 [ɔ]로 ‘우’와 ‘오’의 중간으로 발화되는 음인데 한어병음의 변화로 ‘오’에 가깝게 발음되기 시작한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개음 /ü/와 결합한 비모음들을 보면, üan은 /a/가 자음운미 /n/의 영향으로 [ɛ]가 된다. 다시 ‘위’와 ‘에’의 이중모음 /웨/가 두 모음을 연결하여 ‘위웨:엔’으로 발음한다. ün은 /ü/와 /en/의 결합인데 자음운미 /n/의 영향으로 /e/가 탈락하고 ‘위위’와 ‘ㄴ’의 결합으로 ‘위위:윈’으로 발음한다. iong는 본래 /ü/와 /eng/의 결합인데, 자음 운미 /ng/의 영향으로 /e/가 탈락하고 ‘üng’로 발음하고 영성모일 때는 yung로 표기해야 하는데, u와 n의 혼동을 피하기 위해서 u를 o로 교체하여 yong로 표기했다. 앞에 자음이 오게 되면 ü와 혀의 위치가 같은 i로 교체하여 ‘-iong’로 표기 했다. ‘위위’와 ‘오웅’의 결합으로 이중모음 /요/가 두 모음을 연결하여 ‘위요:웅’으로 발음된다. ‘-iong’은 개음 /i/로 시작하는 체치호가 아니고 개음 /ü/로 시작하는 찰구호라는 점을 강조해야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이 개음 /i, u, ü/와 결합한 결합운모에서 개음을 정확히 발음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보았다. 개음과 결합한 결합운모를 3음절로 표

기하는 것은 이전의 표기법에서 단음절이나 2음절로 표기했던 것보다 개음 발음 연습에 좀 더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최근에 段木三(2005), 林燕慧(2010:78-80) 등은 성모와 개음을 하나의 두음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엄익상도 개음을 활음으로 보고 자음에 붙어있는 두음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한다. 이와 같은 음절 분석법은 전통적인 음절에서 하나의 음소로써 인정받았던 개음을 두음이나 주요모음에 종속적인 요소로 여기는 것이기 때문에 개음 발음에 곤란을 겪는 한국인의 중국어 학습에는 적용하기 힘든 견해이다.

V. 맺음말

본고는 운모를 중심으로 정확한 발음의 교정과 학습에 관한 부분을 살펴보았다. 중국어와 한국어는 언어 유형적으로 완전히 다른 언어이다. 이 때문에 서로의 차이점을 인식하고 모어의 방해에서 벗어나야만 정확한 발음을 습득할 수 있다. 특히 어휘의 단음절어 특징을 가지고 있는 중국어는 다음절어로 한 음절에서 축약되는 한국어 보다는 길게 발음해야 하기 때문에 이에 맞는 표기를 통하여 정확한 발음의 교정과 학습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시도해보았다.

먼저 단모음 /a, i, u/는 ‘아아, 이이, 우우’로 표기하여 길게 발음해야하는 것을 나타내었다. 이어서 단모음 /ü, o, e/처럼 한국인이 발음하기 어려운 부분을 극복하기 위하여 중국어 음운체계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한국어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학습자가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보았다. /ü/는 한국어 단모음 /위/를 중심으로 단모음의 발화 방법을 통하여 한국인 학습자가 범하기 쉬운 오류를 극복할 수 있고, /e/는 한국어 장음 ‘어:’를 이용한 음가 ‘으’에서 ‘어’로 미끄러지는 방법을 제시해 보았다. /o/는 ‘우’와 ‘오’의 중간음으로 한글로 표기하기 어려운 단모음이지만, 순음 자음인 /b, p, m, f/에 붙는 /o/는 단모음이 아니고 이중모음

/uo/의 생략형으로, ‘우위어’ 혹은 ‘오위어’로 발음할 수 있음을 제시해보았다.

이어서 복운모와 비운모는 ‘아아이’(/ai/), ‘아아안’(/an/)과 같이 3음절로 발음을 표기해보았다. 이것은 이전의 이음절이나 단음절 표기법보다는 길게 장음으로 발음해야한다는 것을 더 잘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끝으로 개음발음의 어려움 극복을 위하여 개음 /i, u, ü/와 결합한 결합운모를 개음과 단모음, 이중모음, 비모음의 결합으로 구분하여 개음을 정확히 발음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2음절 이중모음화의 축약과정에서 한 음절이 반모음화 되는 특징을 가진 한국어의 방해를 극복하기 위하여 결합하는 모음과 개음의 발음 그리고 둘 사이의 이중모음화 된 연결체 발음을 함께 표기해 보았다. 개음과 단모음의 결합은 ‘이아아’(ia), ‘우와아’(ua), ‘위웨에’(üe)로, 개음과 이중모음의 결합은 ‘이아오’(iao), ‘우와이’(uai)로, 개음과 비모음의 결합은 ‘이아앙’(iang), ‘우와앙’(uang), ‘위웨엔’(üan) 등과 같이 개음과 이중모음, 비모음 사이에 이중모음의 연결체를 삽입하여 모두 3음절로 표기해 보았다. 그리고 불규칙하게 결합하는 ‘in, ing, ong, ün, iong’은 각각 ‘이이인’ ‘이이잉’ ‘오오옹’ ‘위위윈’ ‘위요옹’으로 역시 3음절로 표기해 발음을 연습해 보았다. 이것은 기존의 표기법보다 현실음에 더 가깝고 무엇보다도 한국인의 모어 방해로 제대로 발음하지 않는 개음을 정확하게 발음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김태성(2000:186)의 지적처럼 3음절의 표기는 한글 읽기 식이 되어 중국어 음운답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지적은 지명 혹은 인명처럼 서면어적인 측면에서는 일리가 있는 지적이지만, 교육현장에서 개음과 주요모음 그리고 운미의 역할과 음의 길이에 대한 설명과 함께 발음교육이 이루어진다면 중국어 음절을 짧고 급한 어조로 말하는 한국학생들의 발음 학습과 연습에는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References >

1. Cao Wen. *Hanyu yuyin jiaocheng*. Beijing: Beijing Language and Culture University Press, 2002.
2. Chen Hong. "The Combination and Actual Sound of Vowel o in Scheme of Chinese Phonetic Alphabet", *Language Teaching and Linguistic Studies*. 2008:06, (2008).
3. Duanmu San(Translated by Ik Sang Eom). *The phonology of standard Chinese*. Seoul: Hankookmunhwasa, 2005.
4. Eom, Ik Sang et al. *How to teach Chinese*. Seoul: Hankookmunhwasa, 2005.
5. Eom, Ik Sang. "The Syllabic Structure of Mandarin and the Status of Glides". *Journal of Chinese Linguistics in Korea* 44, (2013).
6. Han, Hee Chang. "A Study on the Trend of Chinese Pronouncement Studies in Korea". *Journal of Chinese Linguistics in Korea* 44, (2013).
7. Kim, Tae Sung. "On the Korean Writing of Chinese". *The Journal of Chinese Language and Literature* 27, (2000).
8. Lee, Ho Young. *Korean phonetics*. Seoul: Thaehaksa, 1996.
9. Lee, Hyun bok. *Standard pronunciation of Korean*. Seoul: Kyoyookbook, 1989.
10. Lee, Jin Ho. *Standard pronunciation and real pronunciation of Korean*. Daejeon: Acanet, 2012.
11. Lee, Mi Kyoung. "A Study on diphthongic characteristics of Chinese vowel /e/&/o/". *Journal of Chinese Language and Literature* 48, (2006).
12. Lin Tao & Wang Lijia. *Yuyinxue jiaocheng*. Beijing: Peking University

- Press, 1992.
13. Lin Yen-hwei(Translated by Ik Sang Eom). *The sounds of Chinese*. Seoul: Yeoglag, 2010.
 14. Wang Lijia. "The Scheme for Chinese Phonetic Alphabet and the teaching of pronunciation in L2 Chinese". *Chinese Teaching in the World* 2005:02, (2005).
 15. Wu Zongji. *Xiandai Hanyu Yuyin Gaiyao*. Beijing: Huayu Jiaoxue Chubanshe, 1991.
 16. Yu Shijuan. *The Divergence Analysis and Countermeasures to the South Korea's Learning of Chinese Pronunciation*. A master's thesis at Central China Normal University, 2007.
 17. Zhu Chuan, *Waiguo Xuesheng Hanyu Yuyin Xuexi Duice*. Beijing: Language and Literature Press, 1997.

< 참고문헌 >

1. 曹文, 《漢語語音教程》, 北京語言大學出版社, 2002.
2. 陳宏, 〈漢語拼音方案中o的拼合與音值〉, 《語言教學與研究》 2008:06, 2008.
3. 段木三(엄익상 역), 《표준중국어음운론》, 한국문화사, 2005.
4. 엄익상 외, 《중국어 교육 어떻게 할까》, 한국문화사, 2005.
5. 엄익상, 〈표준중국어의 음절구조와 활음의 위치〉, 《중국어언어연구》 44권, 2013.
6. 한희창, 〈한국에서의 중국어 발음 연구 동향 고찰〉, 《중국어언어연구》 44권, 2013.
7. 김태성, 〈중국어 한글 표기법에 관하여〉, 《중어중문학》 27권, 2000.
8. 이호영, 《국어음성학》, 태학사, 1996.

9. 이현복, 《한국어의 표준발음》, 교육과학사, 1989.
10. 이진호, 《한국어의 표준발음과 현실발음》, 아카넷, 2012.
11. 이미경, 〈중국어 모음 e와 o의 이중모음성 고찰〉, 《中國語文學》 48권, 2006.
12. 林燾·王理嘉, 《語音學教程》, 北京大學出版社, 1992.
13. 林燕慧(엄익상 외 역), 《중국어말소리》, 역락, 2010.
14. 王理嘉, 〈漢語拼音方案與世界漢語語音教學〉, 《世界漢語教學》 2005: 02, 2005.
15. 吳宗濟, 《現代漢語語音概要》, 華語教育出版社, 1992.
16. 余詩堯, 《韓國人學習漢語語音的偏誤分析及其對策》, 華中師範大學碩士, 2007.
17. 朱川, 《外國學生漢語語音學習對策》, 語文出版社, 1997.

< Abstract >

Chinese language and Korean language are considered to be two disparate linguistics under morphological classification. Their distinct characteristics can be found in use of vocabularies; monosyllabic words for Chinese and polysyllabic words for Korean. Therefore, this article aims to present correcting and learning methods for accurate pronunciation of Chinese finals by marking appropriate phonetic transcription as Chinese language require more prolonged accents than Korean language(which is abbreviated into a syllable).

First, single vowels such as /a, i, u/ are marked in this article as ‘아아’, ‘이이’, ‘우우’ to emphasize prolonged accents. Explanation of both Chinese and Korean phoneme systems are provided in the text to help overcome pronouncing single vowels like /ü/, /o/, /e/, which Korean

people often find challenging to pronounce.

Second, compound finals and nasal finals are written in trisyllables like /아아아|/(/ai/) and /아아안/(/an/) to emphasize its prolonged sound, longer than previous monosyllables or disyllables.

Third, in order to overcome difficulties in pronouncing medial, combined finals connected with /i/, /u/, /ü/ medials are classified into three sets of combination; medial with single vowel, medial with diphthong, and medial with nasal vowel. The article's attempt will give more accurate phonetic transcription method for Chinese pronunciation than previous ones, as well as improving pronunciation among Koreans which is often impeded by their mother tongue.

Key Words : 중국어 운모(Chinese final), 발음의 교정과 학습(accurate pronunciation and learning), 단운모(individual final), 복운모(compound finals), 결합운모(combined finals), 개음(medial)